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거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받좁고 복(福)이란 립비에 받좁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호홀로 널저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쌌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호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어
 녹미 브롤 즈슬 디너 나쌌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2.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글가 대평성터'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글가 대평성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3.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릿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 읽기 전 활동

(가)는 고려 속요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런 유형은 문학 비문학 복합 유형으로, (가)를 잘 읽은 후에 (나)와 (다)를 읽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형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기출된 유형이기에 학습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가)를 읽을 때는 비문학처럼 읽되, 너무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고려 속요의 기원과 역사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송축의 내용이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와 (다)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유의해서 작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덕을 앞의 잔에 바치고, 복은 뒤의 잔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쳐야 하는 대상은 임입니다. 임에게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화자에게 있어 임은 소중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월(正月)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녀저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정월의 시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 화자 자신은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누군가와 이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한 대상은 <서사>에서 나타난 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에게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늬믹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먼저 이월 보름에 높이 켜 등불을 말하면서 이는 만인을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삼월의 늦봄 진달래꽃을 말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임입니다. 임의 모습을 여러 대상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에게 있어 임은 만인을 비출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제시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의미를 담은 작품은 (나) 작품입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기에 그리움의 정서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임을 송축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지 않고 위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만무하다면 읽기 까다로웠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EBS 연계 작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읽지 못했으면 이런 작품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확실히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흥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을 버리고 가실 것이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자신을 버리고 가냐고 하고 있습니다. 위 작품 또한 이별의 상황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화자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는 어떻게 사냐며 상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흔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작자 미상, 「가시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입을 잡고 싶어 하지만 입이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려워 입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입을 보내드리겠으니 가자마자 돌아오라고 합니다. 화자는 어쩔 수 없이 임과 이별하지만,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작품 총평

이 작품은 (나)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1문단에서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2문단에서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 불렸고,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해 연향 악곡을 선정하기도 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2문단에서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 궁중악에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된 노래가 편입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3문단에서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과 흡수 과정을 통해 상층과 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상층 노래가 하층 노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 3문단에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하'와 '임금'의 구도는 군신 간의 관계로 볼 수 있기에,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
- ㉡ 송축의 내용
-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매 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렴구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서사>의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반복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라고는 볼 수 있기에 ㉢의 예로는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임에게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고 있기에 임을 송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티'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티'는 ㉢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평성대를 찬양하는 의미이기에 송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별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시어이기에 ㉢의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말하고 있기에 ㉢의 예가 아니라 ㉢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3.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우선 (가)의 4문단에서 [A]의 해석이 자연과 사람, 사람

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월령>은 화자가 현재 홀로 지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윗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우선 (가)에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이 노래가 민중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노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품 속 대상들은 민중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을 봅시다. (가)의 4문단에서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과 관련된 대상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춘 들윗꽃'은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화락은 화평하고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의 4연에서 [A]에 대해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으로 보는 평이 있다고 했기에 [A]를 화락의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기에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A]의 제1행과 제2행에서는 대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대상은 물수리 한 쌍일건데 물수리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칭 구조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다)입니다. (다)도 제1연과 제2연에서 대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임일 것인데, 임이 변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의 제1연과 제2연이 구조적으로 유사하기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가)의 4문단에서 [A]가 풍속 교화의 시초와 같은 평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에서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나)에서는 입을 송축하고 있기에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가진 임에 대해 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남'에 대한 사랑을 읊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